

특허청, 특허 신기술 사업에 대대적 자금 지원

운전 시야의 사각지대 없앤다

특허청은 지난달 15일,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개최하고 특허로 등록된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올 한해 동안 1천8백31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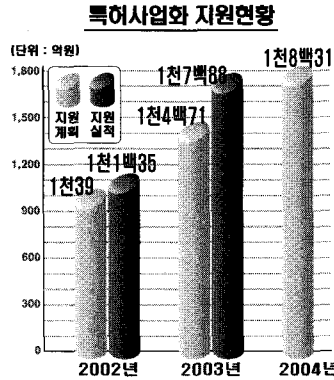
이러한 지원 계획은 '특허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등록된 특허가 제품으로 개발·생산되어 시장에 판매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며 사업화를 막는 가장 큰 애로사항의 38%가 자금부족을 들고 있기 때문.

금년도 사업화 지원자금 1천8백31억원은 작년 대비 24.5%가 증가된 것이며, 특히 연구개발 지원으로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산림청이 신규로 참여하게 되어 정부지원 연구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협의회는 기관별, 사업별로 산재한 지원프로그램에서 '신제품개발 지원 창업지원 양산·시설자금 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연계지원 체계를 갖추어 감으로써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특히 특허기술의 성능 개선, 디자인 혁신, 시제품 제작 등 신제품 개발자금으로 5백64억원을, 특허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자금으로 7백50억원을, 특허제품의 양산 및 시설자금으로 3백7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기술 보유자가 직접 사업화하기 어려운 경우, 특허기술의 평가·거래지원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한 외국출원지원과 특정목적의 연구개발 및 산업재산권 진단 등에 1백4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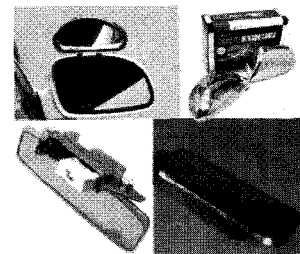


이와같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특허청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특허기술 보증·인증, 기술이전 자문, 판로개척 등 간접지원도 병행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특허청은 우수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 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참여기관 확대, 지원자금의 확충 등 협의회 역할을 제고하고 융자조건 완화, 기술보증지원의 확대 등 고객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 골목길 등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노약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주로 운전자의 부주의에 기인하지만 운전자가 거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도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사각지대란 차량에 고정 설치된 사이드미러나 리어미러(백미러)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곳으로서, 통상적으로 차량의 앞과 뒤 바로 밑부분과 양측면의 인접 지역이 이에 해당되며 차체가 클수록 사각지대가 넓어지게 마련이어서 대형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안정한 시야로 인한 교통사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능한 최대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량 사각지대 감시기술이 최근 들어 속속 개발되어 특허출원되고 있다.



▲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야를 넓혀 주는 각종 보조기구들.

이러한 기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이드미러에 볼록거울 등의 보조미러를 조합하여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는 거울이용 기술, 카메라 등으로 차량 주변의 사각지대를 촬영하여 운전 자 옆에 설치된 모니터에 표시하는 기술, 차로 변경 시 감박이 등의 작동에 따라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 쪽의 지역이 자세히 보이도록 카메라 각도 및 모니터의 화면분할을 조정함으로써 차로 변경시 발생하는 후방 시야의 사각을 감소시키는 화면표시(CCTV) 관련 기술, 거리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장애물에의 접근시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기술 등이 있다.

최근 6년간('97~'02년)의 차량 사각지대 감시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면거울 및 볼록거울 등을 이용한 기술은 최근 3년 동안의 출원이 68건으로 이전 3년('97년~'99년)간의 56건에 비해 증가폭이 거의 없는 반면, 화면표시(CCTV) 관련 출원은 최근 3년 동안 94건으로 이전 3년('97년~'99년)의 36건에 비해 2.6배에 달해 카메라와 모니터를 이용한 화면표시 관련 기술의 개발이 거울을 이용한 종래기술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량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 분야의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6년간('97~'02년)의 차량 사각지대 감시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평면거울 및 볼록거울 등을 이용한 기술은 최근 3년 동안의 출원이 68건으로 이전 3년('97년~'99년)간의 56건에 비해 증가폭이 거의 없는 반면, 화면표시(CCTV) 관련 출원은 최근 3년 동안 94건으로 이전 3년('97년~'99년)의 36건에 비해 2.6배에 달해 카메라와 모니터를 이용한 화면표시 관련 기술의 개발이 거울을 이용한 종래기술보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량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 분야의 기술개발 및 특허출원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리통 줄이는데 효과있는 생리대 나온다

생리통을 줄이는 생리대가 개발되어 여성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안겨줬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의공학연구소장 이태성 교수는 최근 생리통 경감에 효과가 있는 생리대를 개발, 특허를 얻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이 발명품은 흡수층 내부에 인체의 세포분자와 동일한 과장용 가진 금속복합 화합물질을 넣은 것으로, 이 생리대를 착용하면 인체와 미세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면서 자궁 근육 내부에 많은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자궁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하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즉 생리대만 착용하고 있어도 생리통이 억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팀은 이러한 내용을 2001년 홍콩에서 열린 제 29차 세계산부인과 내분비학회에 발표했다며, 멕시코의 한 생리대 제조사가 자체 실시한 효능실험 결과 생리통 경감효과가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태성 교수는 '이 제품은 인체에 무해하며 일부 세균에 대해 항균 기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까지 생리통 완화를 위해 사용했던 약물제나 온열치료 등은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부작용도 있어 불편했으나, 이 생리대는 여성들을 생리통에서 해방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생리통 경감에 효과가 있는 생리대가 개발됨으로써 이제 여성들은 생리통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름이 뭐든 한국인증협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국내 우수 제품 중에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되는 오직 이 제품에만 부여되는 인증제도입니다.

카보나란, Charcoal(숯) + carbon(탄소) + 나(我)의 합성어로 숯을 태운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숯의 신비 -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 · 탈취작용 · 습도조절작용 · 해독작용 · 정화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혈액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www.isdigital.co.kr

ISDigital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

특허청, 특허행정혁신 위한 워크숍 개최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발명 장려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민서비스 제고 방안을 논의하며, 특허청 발명정책국 신규 혁신과제를 찾기 위해 '특허행정혁신 워크숍'을 지난달 12일, 대전 국제특허연수부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특허청 발명정책국 직원 80여명과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학교발명협회 임직원 등 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어 지식 재산행정에 관한 혁신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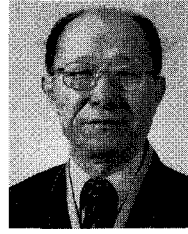
이날 워크숍에서는 비상등을 발명한 동양라이트사의 박성용 대표가 '발명가가 본 특허정책'이라는 주제로 산업재산권 보호와 관리전략 및 정책개선 방안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후 시간에는 각 과제별 분임토의도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효율적인 발명의 달 행사 추진방안,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지식재산교육센터와 기존 발명공작교실의 연계방안, 발명가에게 절실한 특허사업화 및 거래 지원방안, 변리사시험 2차 선택과목별 점수 형평성 확보 방안, 위보상품 유통 근절 방안, 출원·등록 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분임토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발명가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각 제도와 실행방안 등이 충분히 논의되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은 이날 '발명가에게 절실한 특허사업화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토의하면서 '특허를 사업화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자금지원임을 특허청과 각 산하단체들이 절실히 깨닫고 발명가들 입장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자조건의 완화와 기술보증지원의 확대 등 발명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과 유관기관이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기고문

한국여성발명협회 제4대 한미영 회장의 선임을 축하하며 한국여성발명계의 역사적인 국제적 지표설정을 제안한다



원인호 회장 (한국발명인연맹 한국발명운동연합회 한국산업정책연구원)

21세기를 맞으며 지구촌의 역학적 주역이 동북아로 급격하게 이동되어 가고 있음이 전신을 전율케 한다. 민족상잔 후 반세기 폐허와 절망의 늪에서 잘사는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하먼 된다는 일념으로 온 국민의 피와 땀과 젊음을 담보하고 전통의식과 지식의 씨앗을 발전이라는 전답에 모두 뿌려 지난 1995년 'GNP 1인당 1만 달러'

라는 세계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국운운성의 민족적 좌표를 일궈냈고, 이제는 2만불 시대의 더 높은 고지를 향해 그간 축적된 지식의 경륜과 성숙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주체적 선진국으로의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발전적 저해요인들은 환골탈태하여 대대적 개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적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현실 앞에 지식산업화의 선두에서 국가 발전의 씨앗을 자임하고 있는 2백만 발명가족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발명인들의 창조성 본부인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사명과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함을 깊이 인식되게 하고 있으며, 새로 선임된 한미영 회장에게는 한국의 여성발명인들과 지구촌의 여성지식산업인들이 어울려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을 이룩해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주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21세기 여성발전과 잠재되어 있는 여성의 고급 지식발굴 및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제적 지식산업 교류를 위한 새로운 국제 기구의 한국본부 설치를 간절한 마음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전세계 지식여성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여성지식개발의 새로운 집합체를 조성하고 21세기 여성지식의 국제적 교류장인 한국에 본부를 설치하여 한국 여성발명인들 뿐만이 아니고 지식산업과 발명을 하고 있는 전세계의 여성들이 해마다 한국에 모여 상호발전과 우정을 다지는 전문적인 창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서울국제여성발명품 및 신기술대회의 서울국제본부 창설과, 서울국제여성지식산업포럼의 서울본부 창설을 적극 제창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GNP 20불에서 오늘 현재 1만불 이상의 가공할 세계사적 민족발전을 이룩해 내는데 여성들의 눈물 어린 고난과 아름다운 청춘을 담보한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세계 제 12위 경제강국으로의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겠는가?

이와같은 사명적 희생과 봉사에 의하여 이제는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일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지구촌이 하나로 이어지고 국제적 지각변동이 요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여울목에서 지식산업화의 씨앗노릇을 해야 할 한국여성발명협회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은 1%의 국내 시장을 내어주고 99%의 국제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엄숙한 현실의 명령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역사적인 전진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의지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잘못 짜여진 현행법과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 특허발명진흥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을 우선으로 한 여성발명인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입법제정을 제안한다. 그리고 본 특별법이 제17대 국회에서 반드시 발의·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의 전문지식산업화의 선두적 기지구축을 일궈낼 수 있게 되고, 아울러 국제적 지식시장에서의 새로운 신기술교류를 위한 시스템 인프라 형성을 주도하면서 발전해 가는 새로운 여성지식발전의 중추국이 될 것으로 확신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 특허 출원에 끊임없는 관심 보낸다

올해 2월 세무서 직원이 '따뜻한 자전거 손잡이'를 발명해 화제가 된 데 이어 계속해서 공무원 특허출원자가 늘고 있다.

충북 충주의 물관리사업소의 이상연씨와 서울 강남구 하천관리계장 우정수씨가 그 주인공. 이상연씨(37. 화공 7급)는 지난해 동과방지용 수도계량기를 특허 출원, 최근 실용신안등록증(등록번호 0344076)을 받았다. 이씨는 '기존 보온재를 채운 수도계량기 보호함 위쪽에 투명한 용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부동액을 주입하므로 보호함을 열지

않고도 검침이 가능해지며 보온효과는 과거와 같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인공인 우씨는 '미생물 접촉 공법을 이용한 하천수질 정화장치'를 발명해 지난해 12월 30일 특허출원을 마쳤고, 지난달 25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하천관련 공무원 직무교육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장관의 표창도 받았다. 우씨가 발명한 수질정화 장치는 현재 양재천 영동5교 지점에 설치되어 시범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인터넷 현수막 접속 시스템'을 발명, 특허출원을 내놓고 있다.

책 속의 이야기 ⑨

탁월한 처녀 발명가

1989년 7월 초 평양은 젊은이들의 왕국처럼 보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은 '제13회 세계 청소년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도착하는 참가자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축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수천명의 무희들과 체조 선수들의 파도치는 깃발, 꽃과 깃발들, 수백 마리의 비둘기 때, 상징물들의 물결과 슬로건들, 관중들의 거대한 박수 갈채가 평양 시내를 뒤덮었다. 바로 그 때 그 환호성의 뒷결에서는 청소년 발명품과 새 기술을 전시하기 위한 '제1회 평양국제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 전시장에서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수여하는 금메달이 증정되었다. 수상자 중 한 사람은 처녀 발명가인 선운영 박사(1964년 9월 10일생)였다.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진 그녀는 1987년 평양의 과대학을 졸업한 후 외과 분야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한 레이저 개발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녀가 고안한 장치는 전통적인 침술 사용 대신에 침 끝에 레이저 전파를 쏘여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 것이었다. 이 젊은 여성 발명가는 그녀의 발명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이미 5백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했고 장래에 다른 중요한 발명품을 개발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의학박사들은, 여성인 경우에는 55세까지, 남성은 60세까지 급여를 인상받기 위한 목적으로 3년에 한번씩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다. '이러한 목적은 의사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그들의 지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운영 박사는 설명했다.

지난해 BM 특허 출원·등록 건수 증가, 심사 대기기간 단축

지난달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03년도 전자상거래 관련 BM 특허 출원건수는 5천1백77건으로 '02년도에 비해 2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M특허 출원은 지난 2000년 크게 증가한 이후 무분별한 부실 출원이 줄어들고 벤처기업들의 출원이 감소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였으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해 증가추세로 반전한 것.

2003년도 BM 특허 출원은 쇼핑물 및 거래시스템(9백73건), 교육 및 의료(5백67건), 금융서비스(3백48건), 경매 및 수수료(3백4건), 광고 및 홍보(2백28건) 부문에 출원이 집중되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교육, 의료 부문의 출원이 5백67건으로 전년 대비 97.6% 증가하고, 택배서비스 등 물류관련 출원도 2백27건으로 6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03년도 BM 특허 등록건수는 9백7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하였다.

특허청에서는 BM 부문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위해 BM 특허 심사관 증원, 외부 선행기술 조사 확대, 심사관들의 자발적인 심사 실적 향상 노력 등 다각적인 심사적체 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 '03년 심사 착수 건수는 8천4백65건으로 전년 대비 26.7% 증가하였으며 심사 대기 기간도 21.5개월로 전년 대비 5개월이 단축되었다. 특히 우선심사 처리 건수도 2백8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여 BM 특허의 조기권리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심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심사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금융분야 특허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와 특허청 홈페이지의 '인터넷 특허' 코너 등을 통해 출원인에게 다양한 특허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